

1.

[정답] ②

[해설]

- ① 포함된다.
- ③ 투자이다.
- ④ 유량이다.

2.

[정답] ①

[해설]

- ② 있다.
- ③ 갖는다.
- ④ 외부시장보다 내부시장이 길다.

3.

[정답] ①

[해설]

A안

기대수익 : $0.9 \times 100 + 0.1 \times 50 = 95$

분산 : $0.9 \times (100 - 95)^2 + 0.1 \times (50 - 95)^2 = 225$

B안

기대수익 : $0.5 \times 200 + 0.5 \times (-10) = 95$

분산 : $0.5 \times (200 - 95)^2 + 0.5 \times (-10 - 95)^2 = 11025$

ㄹ. 더 작다. 위험은 분산이 클수록 크다.

[팁]

시간 잡고 풀 때 일단 ㄱ, ㄴ에서 답이 결정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게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ㄷ, ㄹ을 보니 둘이 서로 모순되는 선택지라 앞에 두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맞는 선택지로 확정하고 평균수익이 95로 서로 같은 상황에서 A는 95 근처인 100에서 확률이 0.9나 되므로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을 것으로 예상, ㄹ을 틀린 선택지로 판단하고 넘어갔다.

4.

[정답] ③

[해설]

미국 연필을 위안으로 바꾸면 1달러=5위안

중국 연필이 2위안이므로 미국 연필 1자루와 중국 연필 2.5자루가 대응된다.

따라서 실질 환율은 2.5

5.

[정답] ①

[해설]

$$\varepsilon = -dQ/dP \cdot P/Q = 2 \cdot P/(2400 - 2P) = 1/2$$

$$\therefore P = 400$$

[팁]

해설을 쓰다 보니 문득 떠올랐는데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중점에서 탄력성이 1이고 왼쪽으로 가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현재 1보다 작으므로 중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어진 선택지 중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P=400뿐이다. 너무 야매인가...

6.

[정답] ③

[해설]

$$\text{완전경쟁인 경우 } P = MC = 20, Q = 150 - 5P = 50$$

$$\text{독점이 되면 } MR = MC \rightarrow 30 - 2Q/5 = 22 \rightarrow Q = 20, P = 26$$

$$\text{후생손실은 } (50 - 20) \cdot (26 - 20) / 2 = 90$$

[팁]

어이없게 계산 실수해서 틀린 문제...계산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정답] ③

[해설]

시간 잡고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다? 케인즈가 떠올랐다. 왜냐? 우선 소비를 소득의 함수로 보고 투자 또한 animal spirit을 강조했으니까...

ㄱ. 이건 총수요곡선 도출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피구효과 : 물가 하락 → 실질자산 증가 → 소비 증가

케인즈효과 : 물가 하락 → 실질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그런데 이런 효과들이 작다면 총수요곡선은 가팔라진다. (X)

ㄴ. 총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총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폭은 크다. (O)

ㄷ.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O)

8.

[정답] ③

[해설]

이자율 하락한다.

9.

[정답] ②

[해설]

단순하게 생각하자.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싶다는 뜻이다. 그럼 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다.

10.

[정답] ①

[해설]

만기가 서로 다른데 완전대체재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수익률만 보고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유동성 같은 것은 주요 변수가 아니므로 유동성 프리미엄은 0일 것이다.

[팁]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 문제도 경제학에 들어가는지 조금 헷갈린다.

11.

[정답] ②

[해설]

① 단순히 생각해보자. 자국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자국 통화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③ 구매력 평가설

④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12.

[정답] ④

[해설]

① 경기순환 상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② 조세가 늘어날 때 비용이 체증한다면 균형예산이 아니라 재정흑자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조세가 커질수록 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므로)

③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3.

[정답] ④

[해설]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보관하는 데 오히려 수수료를 붙이는 것과 같다. ① 따라서 은행들은 서둘러 돈을 더 풀려고 할 것이고 ②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③

14.

[정답] ②

[해설]

공공재원이 민간 투자의 감소로 조달된 경우라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얻었을 수익보다 더 얻을 수 있어야 공공사업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 소비의 기회비용은 저축해서 세금 떼고 받은 수익이다. 따라서 소비의 가치는 세후 수익률과 관련이 있고, 민간 소비를 줄여서 나온 공공사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세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계산해보면 0.4의 비중으로 15%, 0.6의 비중으로 10%이므로 12%이다.

[팁]

여태 해설 쓰면서 이 파트를 풀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이 정도 수준이 나왔었나 뭐 학문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얘기를 해주자면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에서 다루는 부분인데...음 잘 모르겠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개념을 낸 것 같다.

15.

[정답] ③

[해설]

우선 교역재만 보면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이 같으므로 통화 교환비율은 1이다.(①) 한편, 표준적 소비바구니를 하나 하려면 갑은 30, 을은 20이 필요하다. 이때 환율은 갑 통화 3단위=을 통화 2단위이다.(②) 교역재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갑 1인당 GDP는 300, 을 1인당 GDP는 20이므로 1/15이다.(③) 한편, 표준적 소비바구니를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갑 1인당 GDP는 300, 을 1인당 GDP는 20인데 갑 통화 3단위가 을 통화 2단위와 같으므로 조정하면 200 대 20 (또는 300 대 30)이 되므로 을 1인당 GDP가 1/10이다.(④)

[팁]

이런 문제 처음 봐서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고 틀렸다는...

16.

[정답] ②

[해설]

뭐 이런 것까지 내나 싶긴 한데...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ln X$ 를 $\ln Y$ 로 미분하면, 즉 $d\ln X/d\ln Y$ Y의 변화율에 대한 X의 변화율이 된다. 쉽게 말하면 탄력성 $\ln Q$ 를 $\ln P$ 로 미분하면 P가 1% 변화할 때 Q가 몇% 변화할까에 대한 답이 나온다.

17.

[정답] ④

[해설]

① 국제수지 적자가 문제였다.

② 달러 평가절상 X

③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다.

18.

[정답] ①

[해설]

갑 총생산증가율=A갑 증가율+0.5*L갑 증가율+0.5*K갑 증가율

을 총생산증가율=A을 증가율+0.3*L을 증가율+0.7*K을 증가율

둘이 같아지려면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뺀을 때

$0 = (A_{\text{갑}} \text{증가율} - A_{\text{을}} \text{증가율}) + 0.2 * L \text{증가율} - 0.2 * K \text{증가율}$

$A_{\text{갑}} \text{증가율} = A_{\text{을}} \text{증가율} - 0.2 * L \text{증가율} + 0.2 * K \text{증가율}$

따라서 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p 높아야 한다.

19.

[정답] ②

[해설]

균제상태 : $sy = (n + \delta)k$

$0.1 * (1 - u)^{(1/2)} * k^{(1/2)} = (0.1 + 0.1) * k$

$(1/2) * (1 - u)^{(1/2)} = k^{(1/2)}$

$y = (1 - u)^{(1/2)} * k^{(1/2)} = (1/2) * (1 - u) = (1/2) * 0.96 = 0.48$

20.

[정답] ③

[해설]

상대방이 청소를 한다고 할 때

(1) 나도 청소를 계속 하면 효용은 $3+3+3+3+\dots$ (13에서 10 빼서)

(2) 한번 쉬면 효용은 $11+2+2+2+2+\dots+3+3+3+\dots$

(처음 한번은 꿀빨지만 저쪽이 다음 턱부터 보복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력을 계속 하게 하려면 (1) 효용이 (2) 효용보다 크게 하면 된다.

(2)는 한번 꿀빨 때 $11-3=8$ 을 이득을 보지만 그다음부터 1씩 손해를 입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주 이상만 보복이 들어가면 (2)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진다.

[팁]

8주가 되는 순간 (1)=(2)가 돼서 별 생각 없이 8주를 골랐다가 틀렸다는...이게 숫자가 정수가 아니고 문제가 그냥 어느 시점 이후인지를 구하는 방식이었으면 8주가 답이었을 것 같다.